

두산전 연승 잇고 한화전 열세 잇는다



KIA 타이거즈 양현종이 3일 잠실 구장에서 열리는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 선발로 출격한다. <KIA 타이거즈 제공>

TIGERS 타이거즈 전망대

KIA 타이거즈가 '극과 극'의 상대를 만난다. KIA 타이거즈가 3일부터 잠실 구장에서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주말 3연전을 갖는다. 주말에는 홈으로 돌아와 한화 이글스를 만난다.

KIA는 올 시즌 두산을 상대로 5승 1패를 기록하면서 가장 강한 면모를 보였다. 특히 앞선 맞대결에서는 한화를 상대로 3연승을 거뒀던 두산의 상승세를 꺾고 첫 스위치에 성공했다.

두산전 우위 잇기에 나선 KIA는 돌발 변수를 만났다. 두산 이승엽 감독이 성적 부진을 이유로 2일 자진 사퇴했다. 조성환 퀄리티컨트롤 코치가 감독 대행으로 KIA전을 지휘한다.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두산을 만나는 KIA는 마운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양현종의 역할이 중요하다.

양현종은 3일 선발로 출격해 부상 복귀전에 나서는 광빈과 선발 맞대결을 벌인다.

불펜 고민에 빠졌던 KIA는 지난 1일 전상현과 정해영의 완벽투로 KT 추격을 막고 2점의 승리를 만들었다.

기록 많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 불펜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양현종이 안정적으로 이닝을 풀어줘야 한다.

두산전 우위는 잇고 한화전 열세는 만회해야 한다. KIA는 올 시즌 한화에 1승 4패로 열세를 기록하고 있다.

첫 만남부터 좋지 못했다. KIA는 3월 28일 시즌 첫 원정길에서 한화를 상대했다. 이 경기에서 KIA

두산과 잠실 원정...양현종 선발
홈에서 한화전...폰세 공략 속제
돌아온 위즈덤·전고한 최형우
오선우·윤도현 등 화력 기대감
아쉬운 수비는 집중력 높여야

는 2-0으로 앞선 7회말 대거 5실점을 하면서 역전패를 기록했다.

전상현이 다리에 타구를 맞는 부상을 입기도 했고, 7회에만 5개의 사사구가 쏟아지면서 승리를 내졌다.

초반 기싸움에서 밀린 KIA는 이후 한화를 상대로 1승만 기록하고 있다.

폰세도 KIA를 올렸다.

KIA는 앞선 두 번의 시리즈에서 모두 폰세를 만났다. 폰세는 14이닝 9피안타(1피홈런) 3사사구 13탈삼진 3실점(2자책점), 평균자책점 1.29로 2승을 가져갔다.

이번에도 로테이션상 KIA전 출격이 예상되는 만큼 폰세 공략이 숙제다.

돌아온 위즈덤의 활약이 중요하다.

위즈덤의 부상 공백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KIA는 화력 싸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위즈덤은 지난 1일 부상 복귀전에서 5번 타자로 선발 출장,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진 김도영을 대신해 3루수로 선 위즈덤은 이후 1루도 책임지면서 수비에서도 역할을 했다.

최형우 홀로 버티고 있던 타선에서 위즈덤이 파워를 더해 상대를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 올 시즌 폰세를 상대로 홈런을 기록한 KIA 유일의 타자이기도 하다.

최형우 홀로 버티고 있던 타선에서 위즈덤이 파워를 더해 상대를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 위즈덤은 올 시즌 폰세를 상대로 홈런을 기록한 KIA 유일의 타자이기도 하다.

'기회의 시즌'을 맞은 이들의 꾸준한 활약도 필요하다.

KIA는 기움과 KT를 상대한 지난주 3승 1무 2패를 기록했다.

최하위 기움과의 대결에서는 '잇몸'들의 활약 속에 2승 1무를 기록했다. 시즌 첫 무승부가 아쉽지만 김도영까지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 2승을 만들었다.

KT와의 경기 양상은 조금 달랐다. KIA는 이를 연속 5안타 빈타 속 1득점에 그치면서 연패를 기록했다.

위기 상황에서 위즈덤이 타석에 가세했고, 리드 오프로 나선 윤도현은 첫 타석에서부터 홈런포를 쏘아올렸다. 윤도현은 이날 개인 첫 연타석 홈런까지 기록하면서 기대했던 화력을 보여줬다.

'5월 타율 1위' 최형우의 활약 속 오선우도 최고의 시즌을 보내는 등 화력 고민은 덜었다. 문제는 수비다.

오선우, 윤도현도 매서운 방망이에 비해 수비가 아쉽다. 매 경기 경험을 통해 수비 실력도 키워야 한다.

수비에 따라 경기 흐름이 급변할 수 있는 만큼 야수들의 집중력과 벤치의 세밀한 공-수 조율이 필요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이정효 감독은 울고 싶다

대구FC전도 1-1 무승부 속
변준수·김경민·최경록 부상
12일까지 A매치 휴식 '단비'

이정효 감독이 이끄는 광주FC는 지난 1일 대구·IM뱅크PARK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 1 2025 17라운드 대구FC와의 원정경기에서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김병수 감독의 대구 사령탑 데뷔전으로 치러진 이 경기에서 광주는 전반 43분 아사나아의 페널티킥골로 선제골을 장식했다. 하지만 후반 21분 반대로 페널티킥을 허용하면 1-1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다.

10개의 슈팅을 날렸고, 이 중 6개가 유효슈팅으로 기록됐지만 승리는 가져오지 못했다.

지난 28일 울산HD와의 홈경기 양상도 비슷했다.

상대 김광근 감독이 "어려운 경기였다"고 소감을 밝혔고, 이정효 감독은 "모처럼 광주다운 경기를 했다"고 이야기했지만 결과는 역시 1-1 무승부였다.

전반 30분 이강현과 변준수가 약속된 플레이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선제골을 만들었지만, 후반 2분 에릭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다.

결과도 아쉽지만 과정을 생각하면 애가 탄다. 울산전에서는 선제골을 장식했던 변준수가 경기 막판 들것에 실려 나왔다. 변준수는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울산 허울의 팔꿈치에 맞아 눈 주위가 찢어졌다.

경기 당시 경고가 주어졌지만 상비위원회 결과 퇴장 조치가 내려진 아찔한 부상 장면이었

다.

변준수는 대구전에서 부상 투혼을 선보였지만 이번에도 부상으로 인한 교체가 있었다.

광주의 수문장 김경민이 후반 초반 대구 에드가와 충돌해 쓰러졌다. 한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김경민은 노화동으로 교체됐고, 병원 검진 결과 안와 골절 소견을 받았다.

이날 경기 전에는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던 최경록이 햄스트링 통증을 호소하면서 문민서로 교체되기도 했다.

2일에는 중원의 살림꾼 박태준도 입대를 하는 등 이정효 감독에게는 악몽 같은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 입장에서는 천금 같은 A매치 휴식기다. 광주는 A매치 기간 전력을 재정비하고 13일 제주SK FC와의 홈경기에 나선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 국민타자의 '쓸쓸한 퇴장'

두산 이승엽 감독, 자진 사퇴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의 이승엽(48·사진) 감독이 계약 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지휘봉을 내려놓았다.

두산은 2일 "이승엽 감독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구단이 이를 수용했다"고 발표했다.

두산은 "세 시즌 간 팀을 이끌어주신 이승엽 감독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이승엽 감독은 올 시즌 부진한 성적에 대한 책임을 지고 팀 분위기 쇄신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구단은 숙고 끝에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두산은 2일 현재 23승 3무 32패로 10개 팀 가운데 9위에 머물러 있다.

3일 KIA와 홈 경기부터 조성환 퀄리티컨트롤 코치가 감독 대행을 맡는다.

두산은 시즌 초반 마운드의 기동 광빈과 홍건희의 부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외국인 선수들의 부진이 겹쳐 9위로 처졌다.

"모든 비난은 내게 해달라"고 몸을 낮춘 이승엽 전 감독은 결국 성적 부진 탓에 정규시즌 개막 두 달여 만에 사령탑에서 내려왔다.

선수 시절 '국민타자'로 불리며 은퇴할 때까지 사랑받은 이승엽 전 감독은 2023시즌부터 두산을 지휘했다.

코치 경험도 없었던 초보 사령탑 이승엽 전 감독



에 진출해 세 차례 우승(2015·2016·2019년)을 차지한 기억을 떠올린 두산 팬들은 팀의 2023년 성적에 만족하지 못했다.

지난해에도 두산은 2023년과 같은 승률(0.521·74승 2무 68패)을 찍었고, 순위는 한 계단(4위) 높였다. 최소한의 목표였던 2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에는 성공했으나 '진짜 목표'였던 3위에 오르는 못했다.

게다가 포스트시즌에서는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다. 1패를 안고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나선 2023년에는 NC와의 첫 경기에서 패했고, 지난해에는 2경기에서 1무만 해도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었지만 KT에 와일드카드 결정 1, 2차전을 모두 내줬다. 2015년 KBO가 도입한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4위 팀이 준플레이오프에 나서지 못한 건, 2024년 두산이 처음이었다. /연합뉴스

페퍼스 염어르형 팀 떠난다

몸상태 호전 안돼 임의해지

여자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 미들블로커 염어르형(사진)이 임의해지 신분으로 팀을 떠난다.

페퍼스에 따르면 염어르형은 2일 한국배구연맹에 임의해지 선수로 공식됐다.

염어르형은 재계약을 앞두고 구단과 몇 차례 면담을 진행했으나 수차례 수술에도 무릎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재계약이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연맹 규약 제52조'에 따라 선수가 계약기간 중 자유의사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구단에 임의해지 신청이 가능하고 임의해지 된 선수는 공식일로부터 모든 활동이 정지된다.

염어르형이 계약기간(7월 1일~다음해 6월 30일) 중 구단을 떠나게 되면 페퍼스는 염어르형과의 계약을 임의해지했다. 임의해지 뒤에는 3년간 타구단으로 소속을 옮길 수 없다.

몽골 출신의 염어르형은 2017년 배구에 입문했고 2020년 목표여상에 입학했다.

신인드래프트를 앞두고 염어르형은 한국국적이 필요했고, 한국에서 선수로 뛰고 싶어하는 염어르형을 배려해 목표여상 선배인 정관장의 세터 염혜선이 자신의 아버지 호적에 등록시켰다. 지명 당시 귀화 신청만 이뤄진 상태였고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지만 전 구단이 동의해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있었다. 이후 염어르형은 2022년 9월 2차례의 면접 끝에 귀화에 성공했다.



염어르형은 2022-2023 시즌 V리그 신인드래프트 1순위로 페퍼스에 지명됐다. 194cm 장신 미들블로커로 페퍼스의 활약상이 기대됐지만 무릎부상이 늘 발목을 잡았다.

염어르형은 2022-2023 시즌 무릎 연골 부상으로 2경기 밖에 뛰지 못했다. 2023-2024 시즌(9경기 출전)에도 12월 재차 무릎 부상을 겪으며 시즌 종료 때까지 코트 위를 오르지 못했다. 지난 2024-2025 시즌에는 10경기에 출전했다. 하지만 수술한 무릎이 악화되면서 다시 수술대에 올라야 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최혜진 US여자오픈 4위

고진영·윤이나 공동 14위

최혜진이 올해 두 차례 메이저 대회에서 모두 '톱 10' 성적을 내며 선전했다.

최혜진은 2일 미국 위스콘신주 에린의 에린 힐스 골프코스(파72·6780야드)에서 열린 제80회 US여자오픈 골프대회(총상금 1200만달러)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2개로 4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 합계 4언더파 284타를 기록한 최혜진은 공동 4위로 대회를 마쳤다.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로 이번 대회를 끝낸 최혜진은 4월 첫 메이저 대회 세브론 챔피언십 공동 9위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톱10' 성적을 냈다.

최혜진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어제는 그린 스피드가 매우 빨라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오늘은 그래도 그린 스피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혜진은 2라운드까지 3언더파로 선전하다가 3라운드에서 3타를 잃고 20위권으로 밀렸다.

최혜진은 "준우승도 한 번 하는 등 US오픈에는 좋은 기억이 많다"며 "작년 대회에서 컷 탈락했는데, 올해는 준비를 많이 했다"고 밝혔다.

아마추어 시절인 2017년 US여자오픈 준우승을 기록한 최혜진은 2022년에도 3위를 하는 등 자신의 메이저 대회 통산 6차례 '톱10' 가운데 세 번을 US여자오픈에서 이뤄냈다.

한국 선수로는 최혜진 외에 고진영과 윤이나가 나란히 이번과 288타를 치고 공동 14위에 올랐다.

/연합뉴스